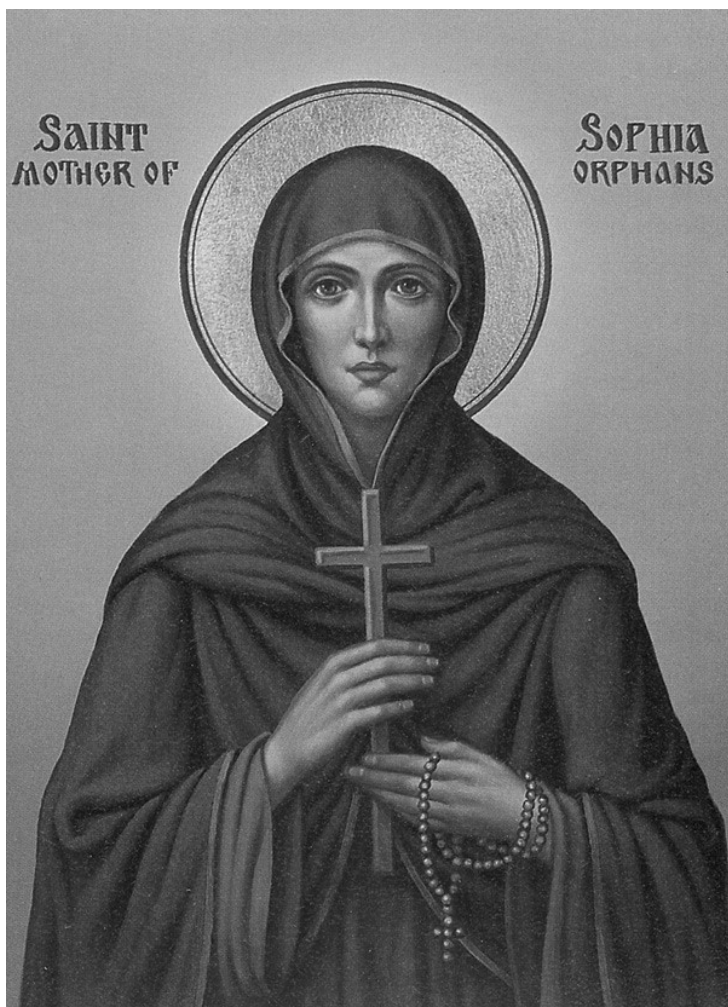




정교회 한국대교구 2021년 22째주 (5월 30일)

정교회 주보



성 소피아 수녀

부활 후 제 5주일 / 사마리아 여인 주일

성 이사아키오스 수사, 성 로마노스 순교자
제 4조, 조과복음 7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 1,2,3 응송 / 사도경 21~23
-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 부활 입당송 / 부활절 예식서 38
- 제 4조 부활 찬양송 / 82, A 214
- 성당 찬양송
- 부활 시기송 / 부활절 예식서 39
- 사도경 : 사도행전 11:19~30 / 254, 봉독서 64
- 복음경 : 요한 4:5~42 / 100, B 20
- 성모송 / 부활절 예식서 26
- 영성체송 / 부활절 예식서 42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교회의 기혼 성인들

우리 교회에서 6월 4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소피아 수녀는 트라키스의 애노스 출신이고 잘 알려진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하여 여섯 자녀의 어머니가 되었지만, 큰 사고로 아이들 전부를 잃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슬픔을 이기고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선을 베풀었고, 기도를 드렸

고, 금식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모두 도와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녀의 가슴과 입에서는 항상 성가가 끊이지 않았습니 다. 그녀의 기쁨은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삶이 끝날 무렵에 수녀가 되어 하느님을 숭배하는 데 전념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53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안식하였습니다.

어느 노벨상 수상자의 가장 훌륭한 학교

언젠가 기자가 어느 노벨상 수상자를 인터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 하였습니다. : “오늘날 이렇게 최고의 영예인 노벨상을 받게 되기까지 당신은 어떤 학교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웠습니까?”

“유치원에서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는 기자가 말문이 막힐 정도로 자연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이윽고 기자가 놀라움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리고 더 상세하게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노벨상 수상자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였습니다. :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닦아야 한다는 것과 옆에 있는 친구의 장난감을 뺏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고, 또 놀이하는 법과, 길 건너편으로 가려면 다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주어야 한다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준 곳도 유치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노벨상 수상자의 지혜로운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난 주 주보에서 언급하였듯이, 한 아이에 대한 올바른 시의 적절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자궁과 아기의 요람에서, 교사는 아이의 어린 시절부터 천천히 아이의 인격을 구축합니다. 이렇게 어머니와 교사는 한 사회와 국가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부모나 조부모 그리고 교사들에게 깨우침과 능력을 주시어 이들이 지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한 위대하고 거룩한 사업을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육자이신 주님께 열렬히 간청합시다. 그들이 아이들을 그리스도 곁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가까이 있어야만 천국의 행복을 미리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이들에게 감사할 것이고 하늘은 이들의 노고에 “백배”의 보상으로 갚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루가18:16)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소망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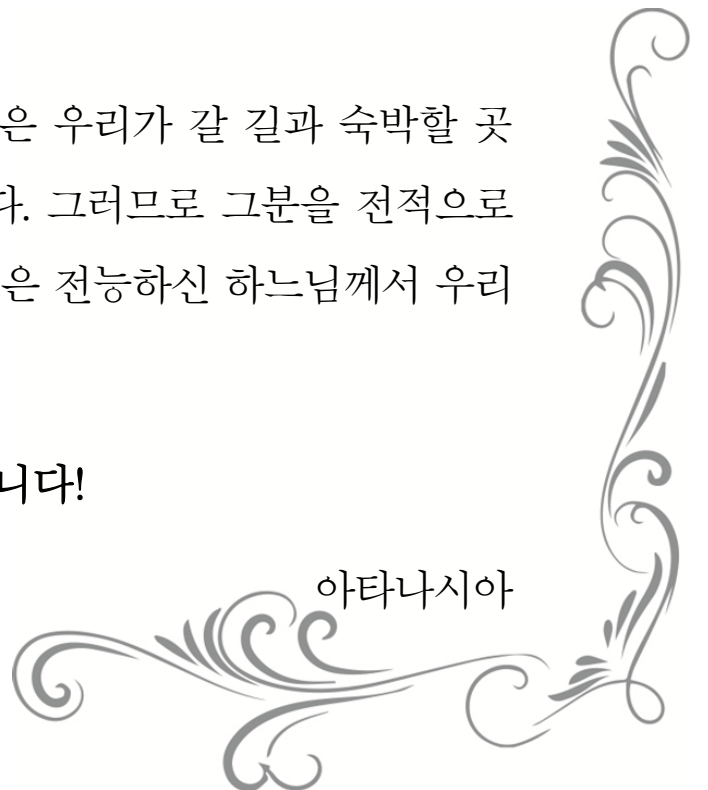
되새겨볼만한 7가지 지혜로운 충고
(영국의 런던에서 있었던 정교 강연회에서)



1. 자녀들더러 부자가 되라고 교육하지 마십시오. 행복하도록 교육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자랐을 때, 사물의 가격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2.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포기할 이유가 백 가지가 있더라도, 그는 당신을 붙잡아야 할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태어날 때 당신은 사랑 받습니다. 죽을 때 당신은 사랑 받을 것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시간 동안은 당신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4. 빨리 가려면 혼자 걸으십시오.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걸으십시오.
5. 세상에 있는 최고의 의사 여섯은, 첫째 햇빛, 둘째 휴식, 셋째 운동, 넷째 균형 잡힌 식사, 다섯째 좋은 친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섯째 깨끗하고 다정한 마음입니다. 이것들을 잘 유지하면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6. 달을 볼 때, 당신은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해를 볼 때, 당신은 하느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울을 볼 때, 당신은 하느님이 만드신 최고의 창조물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진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7. 우리 모두는 이 땅 위에서 여행자들이며, 하느님은 우리가 갈 길과 숙박할 곳과 목적지 등을 이미 정해놓으신 여행 담당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인생’이라는 이 여행을 즐기시다. 이 여행은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니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타나시아





주보 소식



대교구

■ 대주교 전주 성당 방문

지난 5월 22일 토요일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대주교는 전주 성모안식 성당을 방문하셨습니다. 먼저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공사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작업자들과 의논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주와 울산 성당의 신자들과 온라인 만남을 갖고 신자들에게 유익한 영적 말씀과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일라리온 정종혁 신부와 요한 박인곤 보제와 대만과를 집전하신 후 저녁에는 전주와 울산 성당의 주일학교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만났습니다. 주일에는 주일조과와 성찬예배를 집전하셨고 설교말씀으로 중풍병자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믿음으로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과 우리도 다른 이들의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 주보를 잘 활용합시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성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매주 성당에서 발행하는 주보는 그 주의 축일과 성인들의 삶에서의 짧은 가르침과 그 주일복음말씀에 관련된 설교말씀, 영적 가르침, 소

식, 주간예식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해주는 유익한 것입니다. 성당에 나오지 못해서 주보를 못보는 분들은 한국정교회 대교구 홈페이지(www.orthodoxkorea.org)의 미디어란에서 매 주일의 주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주보를 매주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주일학교 온라인 모임 활성화

코로나19로 우리 아이들도 성당에 잘 나오지 못하고 친교모임을 할 수 없어 온라인으로 매주일 오후 5시에 주일학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줌 모임에 학생들의 참석이 많이 저조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영적 가르침과 양식을 통한 하느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지성소 성상벽 수리

노후하여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던 성당의 지성소 성상벽을 장년회 회원분들께서 직접 잘 수리해주셨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